

# “교사 구하기 힘든데...” 연장반 운영 어찌나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정부, 담임교사 부담 덜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제주도내 어린이집 교사 확보난 등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사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구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는 등 보육지원체계가 달라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맡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

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아동의 하원시간에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되던 보육료도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단가로 지원된다. 맞벌이 등을 이유로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임교

사의 기본보육 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져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이 확보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건은 보육교사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담당수가 교사 수급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장반 운영이 쉽지 않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이 여전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주에선 교사 채용이 안돼 지난해 문을 열기까지

힘들었다”며 “도내 읍면 지역은 교사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시내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교사를 구해 보면 오전 시간대는 그나마 채용이 되는데 저녁까지 근무할 교사는 찾기 어렵다”면서 “당장 내년 3월부터 연장반을 운영하려면 오전 9시 이전에 운행되는 등원 차량 문제 등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중에 전국 시도 보육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7일 금요일 음 8월 29일 (6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60%	성산	60%
60%	고산	60%
30%	서귀포	60%

### 주간예보

내일 ☁️ 호리고 한때 비 21/26°C  
 모레 ☁️ 구름 많고 비 21/27°C

### 호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27일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21-22°C, 낮 최고 기온은 26°C로 예상된다.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해돋이 06:25	달뜨기 04:13
해질미 18:25	달지기 17:45
물때	간조 03:48
	21:58
	15:48

###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위험  
 ☀️ 자외선지수 보통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제주대 도시재생 아카데미 국립대학 육성 우수사례로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단(단장 김치환 교육혁신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 아카데미' 사업이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시재생현장지원 아카데미 사업은 제주대 사업단과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가 연계해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성준기자



가을바다 즐기는 서퍼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26일 제주시 애월읍 각지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패들보드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뛰어라, 즐겨라”...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 28-29일 도내 경기장서

제주도내 학생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8~29일 도내 경기장 27곳에서 '제13회 제주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뛰어라! 즐겨라! 즐기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축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키운 기량을 펼치고 우정을 쌓는 장으로 꾸며진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170곳(전체 188곳)에서 학생 6314명이 함께한다. 넷볼, 농구, 배드민턴 등 20개 종목에 499개 클럽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교 97곳에서 학생 2469명이 202개 팀을 꾸려 참가하며, 중학교(43곳)는 177개 팀·2346명, 고등학교(30곳)는 120개 팀·1499명이 열린 경기를 펼친다. 대회 종목별 우승팀은 오는 10월 ~11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스포츠클럽에 제주 학생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 가계·기업 자금난... '대출' 늘고 '저축' 줄고

### 가계대출 16조 육박 채무상환능력 약화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이 16조원에 육박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축성 예금은 감소세로 전환하며 가계나 기업 모두가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7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5조7657억원(전월 대비 52.7%)으로 월중 755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8.1% 각각 상승한 수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래량이 소폭 늘며 예금은행의 증가

폭은 전월 62억원에서 7월 316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신 비은행금융기관은 1억원에서 -67억원으로 집계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타 가계대출은 전월 617억원에서 7월 439억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예금은행은 91억원에서 394억원으로 몸집을 불렀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526억원에서 4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지난 6

월 407억원에서 7월 2091억원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의 기업대출은 690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잔액은 29조1049억원으로 월중 890억원이 감소했다.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10.4%를 각각 기록했다.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 모두 줄며 6월 45억원에서 7월 -440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기업 예금은 1549억원에서 -53억원으로 하락,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국기기자 haru@halla.com

### 29일 '동네! 돌머들 한마당'

제주동네도서관(관장 현관주)은 전시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지는 '2019 동네! 돌머들 한마당'을 연다.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체험·공연마당으로 구성돼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선 '드라이플라워 감사 편지 만들기'를 비롯해 주먹밥·자몽에이드 맛보기, 동전지갑 만들기 등 9개 부스가 운영된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와 함께 트레일 코스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 출발 10분전까지 본부서 현장 접수

2019. 10. 3(목) ~ 10. 6(일)	10:00, 11:00, 14:00 1일 3회	전문 해설사 2인과 동행
---------------------------	------------------------------	---------------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탐방코스를 대상으로 트레일 코스 관련 지질 및 생태,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 회당 30명 선착순 전화 접수 / 사전예약제 (T. 064-750-2523)

10. 03(목)	13:00	지질	전용문
10. 04(금)		곤충	양경식
10. 05(토)		역사·문화	강경희
10. 06(일)		지질	류순길

###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Gimnyeong-Woljeong Geotrail

**2019. 10. 3. (목) ~ 10. 6. (일)**

장 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월정리 일대  
 개막식 2019년 10월 3일(목) (김녕해수욕장 주차장 특설무대)

주 회: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후 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대한지질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참여기관: 구좌읍사무소 | 구좌읍이정단체협의회 |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 김녕리 | 월정리 | 한라일보사

여성기업  
**DESIGN leader JEJU**  
 T. 064-746-0775  
 F. 064-746-0774